

# 성전보다 크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 \* 3/9(화) 사도행전 5-7장

베드로 (1-12장)		바울 (13-28장)
예루살렘 (1-7장)	유대와 사마리아 (8-12장)	땅 끝 (13-28장)
<b>복음의 성장</b> 승천, 오순절 성령, 선포와 표적, 일곱 집사 1-6장 스테반 순교, 핍박과 박해, 선포와 표적 7-8장  1-4장 거룩한 영, 성령이신 <b>5-7장 성전보다 크신</b>	<b>복음 확장의 초석</b> 사울의 회개 9:1-31 베드로와 고넬료 9:32-11:18 안디옥 교회 11:19-30 베드로 투옥, 헤롯의 죽음 12장  8-10장 부활하신 11-13장 온 세상의 왕이신	<b>복음의 확장</b> 1차 여행, 예루살렘회의 13-15:35 2차 여행 15:36-18:22 3차 여행 18:23-21:16 핍박, 잡힘, 상소, 로마행 21:17-28장  14-17장 새 언약이신

## Before 즐치며 읽기

경계와 기준을  
 넘나들며 일하시는  
 성령을 발견해 보십시오.

## After 묵상하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나의 '성전', '율법'  
 '기준' 들은 무엇입니까?

## 참고도서

백주년기념성서주석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행전(통 라이트)  
 바울평전(통 라이트)  
 신약개론(데이비드 A. 드실바)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표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출40:34-38, 대하7:1-2)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떠날 때마다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멈추지 않았고 날로 더해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떠나셨습니다(겔10:18).  
 이스라엘은 경고대로 망했고,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시길 갈망했습니다.  
 곤한 '포로 살이' 가운데 <새 출애굽>을 요청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율법(토라)>을 중심으로 신앙을 결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준수하겠다고 결단하며  
 말씀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마1:23).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마1:21, 새 출애굽).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하실 <말씀>이십니다(요1:14).

<성전>보다 크신 분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마12:6).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6:3, 5).  
성령님은 스데반 안에서 마음껏 일하셨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6:8).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10절).  
사람들은 스데반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15절).  
“스데반을 내면에서부터 밝혀 주는 빛”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로 인해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반대했다는 혐의였습니다(6:14).  
스데반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잡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역 현황을 브리핑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인물 순으로 서사해 나갑니다(7장).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척했던 조상들의 불순종을 열거해 나갑니다.  
이름과 서사 모두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방식이었습니다(ㄴ9장, 단 9장, 시105, 106편).  
둘러선 유대인들도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멸망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에 열심을 내던 차였습니다.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하나님 사랑과 충성에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순간, 스데반의 말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7:48-49).  
그들은 건물과 전통, 제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 옛 방식 그대로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에 있어 조상들과 매한가지였던 것입니다(7:51-53).

결국 스데반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martyr) 즉, ‘증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믿는 것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만큼 확실한 증인은 없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예수와 만난 스데반은, 새 출애굽, 새 창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생명조차도 주님께 위임하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7:56, 59)